



Raon Atti 7th Batch in Sri Lanka, 4월 보고서

그래도, 시간은
참 잘도 간다.

CONTENTS

_Team Report

- | | |
|---|--------------|
| 1 이번 한 달 정리_”랑카의 바쁜 4월” | Khalpana(소영) |
| 2 Blood Donation Campaign_”사랑을 나눕시다” | Nayana(수경) |
| 3 싱할리/타밀력 신년맞이 YMCA 축제 한마당_”신년 축제 속으로 Go Go!” | Kelum(승창) |
| 4 미뤄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하여_”왜 시작하지 못하였는가?” | Chathura(재범) |
| 5 Class에 관한 고찰_”아이들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적절한 자세” | Nilmini(서연) |

_Personal Report

- | | |
|---------------------------|--------------|
| 1 여행을 떠나요 | Nayana(수경) |
| 2 다른것의 차이를 알아가는 과정, 교통편 | Khalpana(소영) |
| 3 짜뚜레가 배운 스리랑카 요리, 첫시간 | Chathura(재범) |
| 4 나비효과, 나의 효과 | Nilmini(서연) |
| 5 Cargill, 스리랑카의 식탁을 점령하다 | Nilmini(서연) |
| 6 목숨을 걸어온, 스리랑카의 자유언론운동 | Nilmini(서연) |
| 7 연탄재 | Kelum(승창) |

_보고서 4월 담당자 후기

우리는 4월보고서를 앞두고 두 가지를 합의했다. 컨셉컬러는 주황색, 페이지 위아래에 주황색 라인 넣기! 그런데 다 수합하고보니 이게 웬일인가. 내 눈엔 분명 노란색인데 누군가 눈엔 주황색이라고 하고, 수평으로 라인을 넣을줄알았는데 대각선으로 라인을 넣어온 누군가도 있었다. 역시 인간의 상상력이란!! 아참 그리고 다음달 보고서 용으로 써놓은 글을 칼푸나 때문에 미리 땡겨서 넣게 되었는데……다음달에 글 제출못해도 난몰라. 칼푸나가 5월 보고서 담당자니까 이해하고 책임져 주겠지^0^

-Nilmini(서연)

APRIL 04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1 | 2 | 3 | 4 | 5 | 6 | 7 |
| Nihal 땃따와 함께 기독교 연극공연 관람 2시간 30분!! | -Digorolla Class -Committee Meeting | -Compost bin 점검 -식료품 구입 -Herbal Drink 준비 | -Distributing Herbal Drink -Preparing Blook Donation Campaign | -YMCA일없어서 하루종일 병짬 -3월 보고서 제출 | -Good Friday -YMCA 출근안함 | -Blood Donation Campaign (with Youth Club)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무려 새벽 5시 30분에 새벽기도참석 (Nihal땃따와 함께) -Nihal 땃따와 점심식사 | -Weekly Meeting with Ashoka -Digorolla Class 첫 합반 -Ashoka와 함께 Drinking!! | -Temple구경 -Committee Meeting (Nimal 생일파티도 함께함!) -Nayana 치과갔다움 | 인도네시아 지진의 여파로 쓰나미경보!!! 다들깜짝놀람 고지대에 있는 수데시 집으로 피신함 | -앞집 암마 병문안(미역국 들고 방문) -YMCA휴일 -신년휴일 | -싱할리/타밀 렉 신년 -쌘빳아이야 집 방문 (아기에게 옷선물!!) -대청소 -개미소동ㅠㅠ | 어김없이 출근!!! 출근안해도 되는거 몰라서 출근한건 비밀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수데시의 에스코트로 콜롬보에 가려했지만, 고씨아저씨의 똬방으로 콜롬보 근처만 구경하고 옴 -갓프리아저씨의 초대; 배터지게먹고 옴 | -페인트 구입 -Committee Meeting | -벽화 본격적 시작 | -신년맞이 축제준비 -Herbal Drink분배하러가서 새로운 노래부르기 시작! -Youth Club 수데시아이야 보드멤버 축하, 라니샤 생일 축하파티 | -짜뚜레 생일 -깜짝파티!! -아침: 미역국 -점심: 폭식 -저녁: 케이크, 치킨, 우리끼리파티 | -페인트작업 -축제준비실무 -아쇼커아이야, 수데시아이야, 쌘빳아이야 초대해서 저녁만찬 (짜뚜레 생파 ver.2) | -엄청엄청 긴 축제..... 다들 엄청 시커매진 날!! -오피스사람들과 저녁만찬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짜뚜레 셰프의 저녁만찬 | 엄청난 폭우로 디고롤라수업 취소, 벽화중단 | -벽화작업 -스리랑카 영화 '마창' 관람 | -폭우로 허벌드링크분배 취소 -닐미니 척추주저앉음 | -닐미니는 거실에 빠짝누워서 팀원들기다림 -하루종일 벽화 | -닐미니는 오늘도 거실에서 팀원들 기다림 -벽화작업 -ChildrenClass | [TRIP 1] -차사고남 (보험회사 기다리다가 하루가 다감) -시기리야!!! |
| 29 | 30 |  | | | | |
| [TRIP2] -아누라다푸라 | [TRIP3] -플로나누와 -7시간 주행 -집도착 -폭풍빨래 | | | | | |

랑카의 바벨은 4월

본격적으로 바라보는 랑카팀 4월 궁금?궁금!궁금.



4월의 첫 시작. 기독교 '예수탄생' 연극 2시간 30분짜리를 비를 맞으며 시작



드디어 컨포스트빈 체크
20120403



헌혈캠페인 [0407]
with Youth club



Mr, 니할 함께 5:30Am
새벽기도, 점심만찬 0408



디고클라 첫! 합반수업
-활동수업 0409



기차 처음타고 사원으로 가요♪ 0410



Mr. 니할 생일파티 0410
- 한국스타일 초코파이



!!!!쓰나미 경보!!!! 0411
-수데수집으로 대피.
그러나..우리 너무 바가고됐다.



알집 암마 병문안 0412
- 미역국과 보리차물 함께

랑카의 바블은 4월

본격적으로 바라보는 랑카팀 4월 궁금?궁금!궁금.



삼베앗아이야 아기
- 너무나한이쁜아기
20120413



수데쉬와 함께 해변
오전잠시 0414



Mr.가프리 점심초대
- 배터지게 먹은날



0414 위기 시작, 다른 두 음식 만들기 * 피켓들기는 비가 안와도 계속된다.



벽화가 시작!!
우여곡절 만은 벽화
드디어 페인트 시작
곧! 완성 예상.
-0405 ~ ??



눈치바른 짜뚜레!
감작은 못했지만,
많은 축하와 많은
맛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시한번 축하축하**
-0419 29짜뚜레생일

랑카의 바블은 4월

본격적으로 바라보는 랑카팀 4월 궁금?궁금!궁금.



- Youth Club 0418
수데쉬 보드멤버 된 날.
나니샤 생일파티 축하작업작



짜뚜레 생일축하파티
맛있는 한국음식 잔뜩 준비한날
0419



New Year Festival
0421 신났던 시간 & 저녁만찬



0426 넬리니 허리부상
- 넬리니허리에 문제가 생겼다가
아파지마 (현재 회복중)



0427 오래만에 칠드런클럽
- 4월에 금요일마다 행사가 있어서 수업
진행 못한 (여행이 하루 연기되어 수업함.)



0428 우여곡절 첫여행 출발-
- 시기리아를 정복하다.
한눈에 보이는 시기리아 흔다이



0429 사원과 물놀이
- 아누라다푸라 사원을 다 보고,
우린 신나게 물놀이의 세계로 Go



0430 4월의 마지막은 여행으로
- 플른나누와를 쓱쓱이 구경 후
7시간동안 차타고 집 돌아옴

랑카팀은 4월을 연극으로 시작해서, 여행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축제와 행사가 많은 스리랑카 4월을 즐길 수 있었고, 직접 몸으로 겪는 일들이 많았던 4월
이러서 더 기억에 남을 우리들의 4월. 다가올 5월을 향해 또 다시 야 무-

랑카의 바빌은 4월

우리들의 4월에 어떤일이 있었을까요? 보러 야무야무-



아주 긴 연극공연



컨도스톤빈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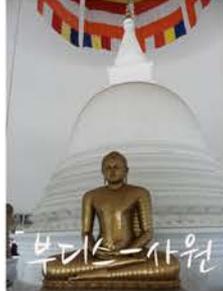
헌혈 캠페인



첫! 합반 디고르라



아슈카와 만찬



부디스-사원



MR 니말 생신파티



YOUTH CLUB 준비



알집 알다 방문안



'난삼밤' 딸



수데쉬와 콜롬보행



MR 가프리 점심초대



벽화색칠작업시작



라니사 생일 축하축하



짜뚜레 생일 ♥



New Year Festival



한국의식만찬



닐미나가 아파요 ㅠ ㅠ



모래놀이엔 칠드런수업



첫! 여행

그래도, 시간은 잘도 간다.

랑카팀의 우여곡절 4월 이야기를 집중파헤쳐 보자!

사랑을 나누시다.

Blood donation campaign

4월7일 Youth club을 주축으로 헌혈캠페인이 진행되었다. 라온아띠 역시 헌혈캠페인을 진행하는 보조역할로써 참여했다. 헌혈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홍보와 진행 후 마무리까지 함께하면서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격적으로 헌혈캠페인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겠다! 야무야무!!

Step1. 리플렛 만들기



모라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 헌혈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리플렛에 부착하여 모라투와 YMCA만의 헌혈캠페인 리플렛을 완성하였다.

Step2. 리플렛 배포하기& 포스터 붙이기



리플렛을 만들었다면 많은 모라투와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 역 앞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토요일에 YMCA로 오세요' 를 외치며 리플렛을 배포하였

다. 포스터 역시 장소와 시간을 적어가면서 YMCA근방의 모라투와 지역에 3시간에 걸쳐 열심히 부착하였다.

Step3. 헌혈캠페인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헌혈캠페인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게 헌혈 후 먹을 것을 나누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린바나나, 케익, 피쉬번과 시원한 초코우유 또는 바닐라우유를 준비하고 시원한 물도 함께 준비하였다. 또한 헌혈을 담당하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문하고 헌혈물품들을 메인 홀에 셋팅하는 역할을 했다.

Step4. Youth 멤버들과 함께 헌혈캠페인 진행하기



우리가 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생각보다 별로 없었다. 준비한 다과를 헌혈을 마치고 오신 분들께 나누어드리거나 안내를 도와드리는 일 이외에는 간호사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Step5. 마무리하기



모든 캠페인이 종료되고 우리는 메인 홀(캠페인 장소)을 정리하고 헌혈을 위해서 담당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번 헌혈캠페인을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들이 알게 된 새로운 이야기

-스리랑카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적십자사가 아닌 국가에서 혈액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배포했던 리플렛과 포스터 역시 국가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리플렛과 포스터에 장소와 시간에 대한 공지를 별도로 기입해서 홍보를 했어야 했다.)

-헌혈캠페인에서 제공된 다과는 보드멤버와 YMCA에 관련된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헌혈캠페인이라는 좋은 내용의 캠페인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을 느꼈던 부분이었다.

신년축제 속으로 GO!GO!

스리랑카의 4 월은 한마디로 휴일과 축제다. 휴일이 이토록 많은 이유는 우리의 명절과 비슷한 시기이기도 하며 스리랑카의 새해는 1 월이 아니라 바로 4 월이기 때문이다. 불교가 대중화된 스리랑카는 불교 달력으로 4 월이 신년이 된다. 굳이 불교를 믿지 않아도 전 지역에서 4 월을 새해로 받아들이고 함께 즐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모두 즐겁게 축제를 보낸다. 또한 불교나 다른 종교의 기념일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며 함께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 축제 행사에는 모라투와 YMCA 에의 칠드런 클럽, 디고롤라 클래스 , 유스클럽, 아이들의 부모님들 , 진행을 돕는 보드멤버 까지 다양한 세대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나누어지지 않고 어울리는 분위기를 가진다. 한마디로 YMCA 에서 각자 이루어지던 클래스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시간. 진정한 축제인 것이다. 유쾌하고 웃음이 그치지 않는 즐거운 시간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깨알 같은 신년 축제 게임들 속으로 GO GO!



마라톤

4~5km 정도의 거리를 아이들에서 유스클럽까지 함께 달리는 즐거운 시간!
맨발로 뛰는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빵먹기 & 사탕찾기

손을 뒤로 한채 나무에 매달린 빵을 빨리 빼먹기와 밀가루 속 사탕 찾아먹기 게임, 속도가 생명

[텍스트 입력]



코끼리 눈 그리기

코끼리를 사랑하는 나라답게 코끼리의 그림에 눈을 찍어 그리는 게임
눈을 가리고 제자리에서 몇 바퀴를 돌리는 센스스



항아리 깨기

항아리안에 물을 넣어놓고 눈을 가린 채 몽둥이로 항아리를 깨기!
포인트는 물감이 들어간 항아리를 깨는 것.



베게 싸움

베개로 하는 나무 위에서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게임.
골이 흔들리는 휴유증이 단점.



연기와 콘스프레

우는 연기에서부터 거지, 원시인까지 모라투와 Y는 슈퍼스타?



라임 수저로 옮기기

수저로 라임을 안전하게 옮겨라.
집중력이 최고.

이

밖에도

미스 YMCA, 줄다리기, 춤추기, 의자 앉기, 달걀 던지고 주고받기, 소다 빨리 마시기 등등 해야될 수 없는 게임들이 하루 동안을 함께했다.

이 다양한 게임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Y 를 함께하는 멤버들이다. 음식을 준비해오시는 어머님들, 내일같이 들어와 게임을 진행하는 유스멤버들, 자리를 떠나지 않고 흐뭇하게 바라보는 보드멤버들, 어린 친구들까지도 제 몫인 일들을 찾아 물건들이 바빠 움직이고 빠지지 않고 하나같이 열심히 친구들을 보면서 이 공간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의미는 우리가 느끼는 이상인 것 같다.



왜 시작하지 못하였는가?

스리랑카 7기 팀이 모라투와에 온지 벌써 세 번째 달. 아직 시작도 못해본 프로그램들은 왜 그렇게 된 건지 이유를 정리해보기로 하였다.

1. 코리안 클래스

YMCA에서 전문성 있는 한국어 교사를 구했고, 그 분이 Korean Class를 진행한다고 한다고 하였는데 4월이 끝난 시점에서도 수업은 시작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수업료가 생각보다 비싸고 수업도 시작되지 않고있어 Children's Club 아이들 중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는 멤버들이 생김. 별도로 라온아띠 한국어 수업을 하는 게 어떨것냐고 Mr. Ashoka에게 제안함.

Mr. Ashoka는 YMCA에서 한국어 수업을 유료로 여는 상황에서 무료 수업을 같이 열게 되면 유료인 반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을 함,
GS Samphat은 Children's Club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수업시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이후 단계 진행이 이런 저런 일들에 치여 진행되지 않음.

2. Spoken English Class

처음에 Mr. Ashoka는 영어를 배우고 싶지만 시간이나 금전적인 문제로 영어를 배울 수 없었던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본 문법을 중심으로 영어수업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고 팀원들은 만나보지 못하였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어공부를 시작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임 _ 3월 초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고 모라투와역을 중심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GS Samphat과의 의사소통 과정의 문제(인쇄프로그램을 GS Samphat만 다룰 줄 아는데 출장으로 며칠간 만나지 못함 / GS Samphat이 자신에게 달라는 것이 e-mail로 보내라는 말이었는데 YMCA 컴퓨터에 저장함 / 이 과정에서 GS Samphat이 확인하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느라 며칠을 더 허비함) _ 3월 중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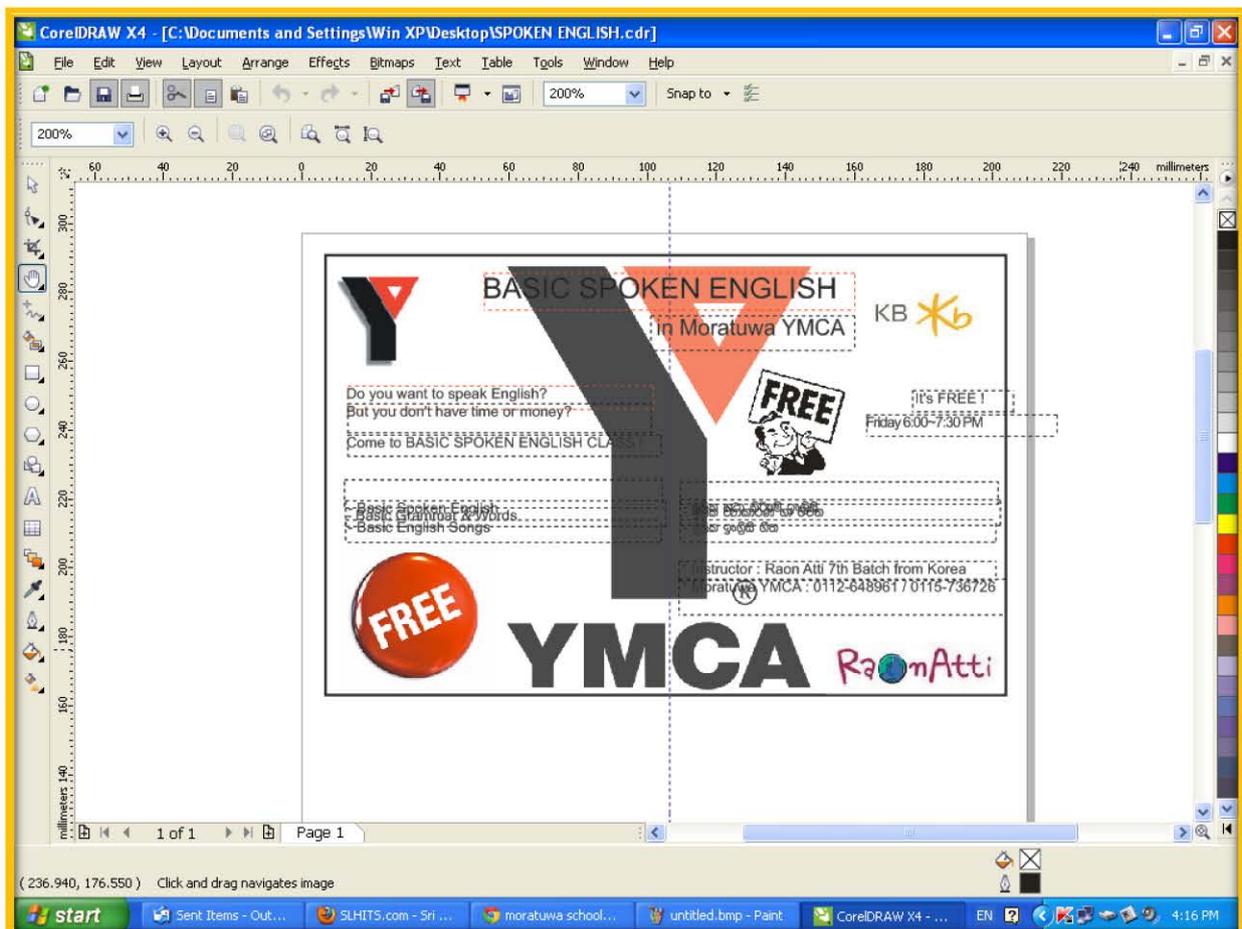
전단지가 완성되고 인쇄만 맡기면 되는 상황에서 Mr. Ashoka로부터 수업을 Children's Club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라는 통보를 받음. 그 이유를 물으니 라온아띠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게 아닌 상태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열 경우 학생들의 학습 정도도 다르고 잘못 알려주었을 경우에 YMCA나 라온아띠 이미지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함. 이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수업진행을 하였으면 한다는 설명을 덧붙여주었음. 아이들에게 그냥 영어 수업이 하나 추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일단 영어수업을 시작해보기로 함. 4월 20일 Children's Club 직후 아이들과 GS Sampath이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Children's Club과 Digorolla Class 아이들을 대상으로 5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수업을 시작하기로 함. 하지만 GS Sampath 조퇴와 Wasek 하루 전이라서 아이들이 많이 안와서 수업은 또 다음주로 연기.

3. Class for Tsunami effected Children in Lunawa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다같이 방문하고 그곳에 계신 대표자 두 분에게 살고 있는 아이들의 수, 학교를 다니는 수, 이름과 연락처를 조사해 달라고 부탁드림(3월28일). 며칠 뒤에 자료를 받고 Mr. Ashoka는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몇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게 될것인지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몇 주째 소식이 없음. 다른 일에 계속 밀리는 느낌임. 커미티 미팅에서는 매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재방문이 언제 일지는 알 수 없음(커미티는 수업 초반에는 Digorolla Class 처럼 라온아띠가 그곳에 가서 수업을 진행하기 바람. 아파트에서 장소를 사용하는 문제 조율로 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마지막 커미티 미팅에서는 아파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홀이 아직 공사 중이라는 사실과 완공까지는 2주에서 길게는 2달이 걸린다는 말을 듣게되어 사실상 무기한 연기 상태임.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수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시작이 쉬워 보이지 않음.

4. Street Children in "Bethany Home" at Moratuwa

3월 중에 시작했어야 하지만 일정 변동으로 시작하지 못함. 일정변동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코리아 커미티의 회장인 Mr. Godfrey가 연결을 맡고 있는데 그곳 책임자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들었다. 게다가 Class for Tsunami effected Children in Lunawa가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뒤로 밀림.



아이들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적극적인** 자세

지난 월간보고서에도 썼듯이, 우리 라온아띠 7기 스리랑카팀은 Tsunami Effected Children을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다. 새로 만나야 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고민하던 와중, 현지코디네이터 아쇼커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내줬다. 남은 네 달간의 수업계획서를 준비해오라는 것이다. Tsunami Effected Children과 Digorolla Garden Children과 함께하는 두 가지 수업에 대해 계획서를 작성해나가기 앞서, 우리 팀은 일주일에 걸쳐 매일 밤 조금씩 두 클래스에 대한 논의를 했다.



1. 목표를 낮게 잡자.

Tsunami Effected Children Class & Digorolla Garden Class

Digorolla아이들에게 영어 알파벳을 가르치다보면, 지난 몇 기수가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아이들이 F이상까지는 모르고 있었다. 현지로 처음 파견되는 여느 새내기 라온아띠 단원의 설레는 마음과 같이 우리는 3월동안 우리가 이들의 영어 실력을 출중하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기도 했다. 그런데 수업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마음대로 되질 않는 영어 진도에 답답하기도 하고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어떤식으로 설명을 해줘야할 지 막막하기도 했다.

우린 다시 “성미산 학교”에서 꽃다지 선생님께서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되새길 필요가 있었다. 대충 ‘목표를 잡지 말아라, 목표가 생기면 의욕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해져서 아이들을 다그치고 여유롭게 한 명 한 명 챙기며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목표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우리의 목표는, 1)알파벳 A부터 Z까지 다 가르칠 수만 있어도 대성공이다. 2)수학 덧셈 뺄셈만 가르칠 수 있어도 대성공이다, 로 대폭 수정되었다.

2. 처음 수업을 열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Tsunami Effected Children Class

이미 몇 년 동안 라온아피에 익숙해진 Digorolla Class와, 이제 처음 우리가 다가야 하는 Tsunami Effected Children Class는 많은 것이 다를 것이다. Committee Meeting에서 보드멤버와 코디네이터와 함께 논의한 결과, 새로 열리는 수업의 초반에는 무엇보다도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먼저, 학부모들에게 수업이 ‘생산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종이 접기나, 색칠한 종이, 혹은 종이공예 등을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처음 만나는 아이들과 Friendship을 쌓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모두들 동의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외국에서 온 낯선 사람에 불과하다. 그 아이들과 교감하고 매주 Class를 열 수 있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한 발짝 한 발짝씩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비록 Moratuwa YMCA에 라온아피가 파견되는 것은 다음 기수인 8기가 마지막이지만, 보드멤버들은 그 이후에도 Tsunami Effected Children Class를 이어갈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7기는 조금 멀리 보고 초반의 Friendship을 다지는 데에 주력할 것 같다.

3. 기능적 지식, 교양적 지식

Digorolla Garden Class

(일단, 여기서 말하는 ‘교양적 지식’이란 기능적 지식; 영어 수학 등이 아니라 환경, 세계, 문화 등등을 일컫는다.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이런 이상한 단어를 사용하게 된 점을 미리 언급해두는 바이다.)

애초에 Digorolla Class에 대해 설명을 들을 때에, 영어수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그러나 팀 내부에서 아이들이 알면 좋을 ‘교양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팀원은 영어를 교육 하다보니, ‘내가 지금 사교육을 행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뭐 어찌됐던, 우리 팀은 영어교육에 대한 목표를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그 ‘교양적 지식’을 나누는 게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스리랑카와 인접한 국가에 대해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2-3가지의 관련 단어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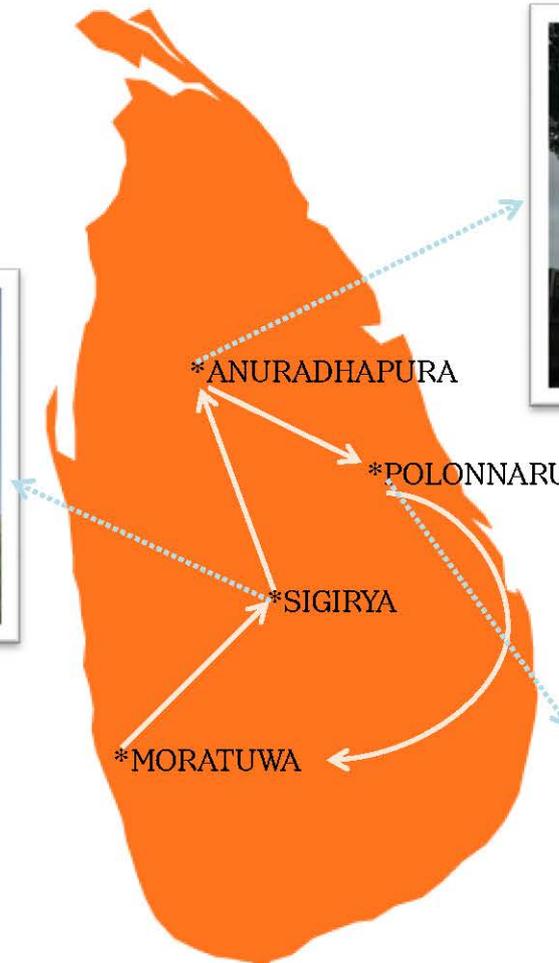
PS. Digorolla Garden 아이들을 만난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휴강되고, Trip일정과 겹쳐서 휴강되고....우리는 기나긴 회의를 통해 수업 계획서를 세웠지만, 계획을 세운 이후 단 한번도 아이들을 만나보지 못해 슬프다.

여행을 떠나요

왜 우리는 그곳으로 갔는가?

이번 라온아띠 스리랑카 7기가 떠나는 첫 번째 여행지는 Sigirya , Anuradapura , Polonnaruwa 이다. 첫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리랑카에서 콜롬보와 모라투와가 아닌 다른 곳을 간다는 것은 무척 설레지만 ‘왜 하필 그곳인가?’ 라는 의문도 들었다. 난 아쇼커 아이야(현지코디네이터)에게 물었고 아쇼커아이야 말에 의하면 우리가 가는 곳은 모두 스리랑카의 고대 문화 유적지라고 한다. 라온아띠 스리랑카 7기팀은 스리랑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곳을 첫 번째 여행의 장소로 선정했다고 한다. 또한 유네스코로 지정될 만큼 스리랑카에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또 다른 스리랑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 스리랑카 역사 속으로 야무 야무!!



Story1. Sigir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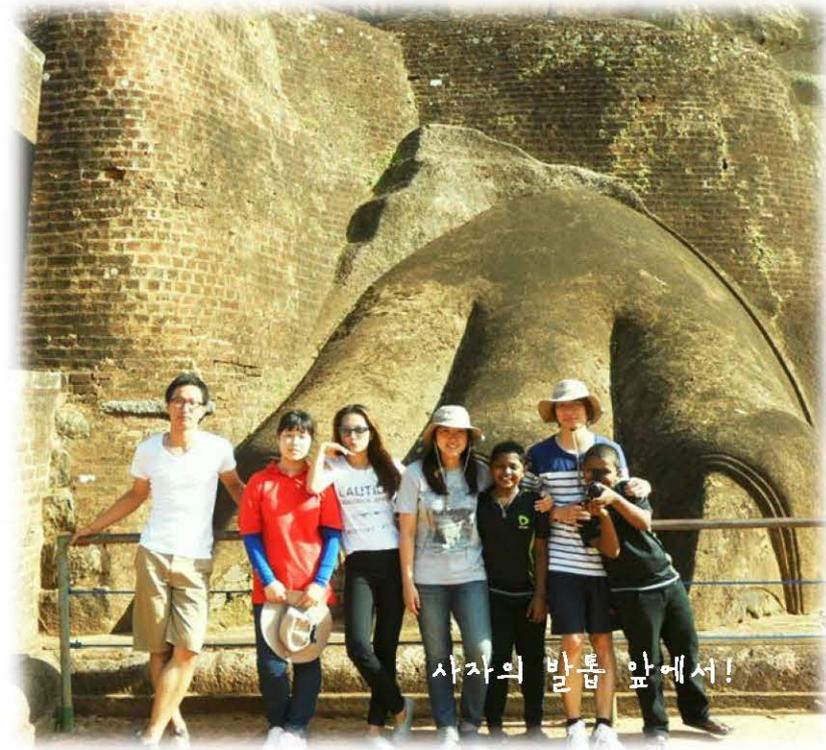
시기리야 요새는 예술가이자 정신이상자이기도 했던 카사파왕이 부왕을 죽이고 왕좌에 오른 뒤 후환이 두려워 바위 꼭대기에 세운 궁전 터!! 암벽의 높이는 무려 200m이며, 이곳이 세계적인 명소가 된 것은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예술작품으로 평가 받는 시기리야 벽화 때문이라고 한다!

시기리야 벽화는 왕의 시녀들의 시중을 받고 있는 '압사라'라는 요정들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 '시기리야의 숙녀들'은 당초 5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훼손돼 18명만 남아 있다.



'미러 월(mirror wall)'이라 불리는 회랑 벽!! 달걀 흰자와 꿀, 석회 등을 칠한 '거울 벽'에는 역대 왕조의 흥망을 노래한 서사시와 시기리야 벽화의 여인을 칭송하는 시들이 가득 새겨져 있다. 최초의 싱할리 문학작품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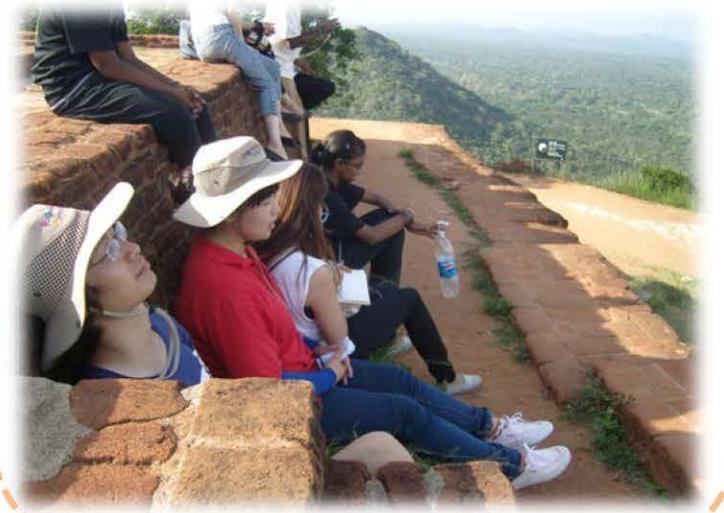




사자의 발톱 앞에서!



200M 바위산 등반 후 쉬는 시간!



시거리야 정상에서 라온아씨를 외치다!



BC5세기에서부터 AD8세기까지 싱할리족 왕국의 첫 번째 수도였던 곳이다. 760년경 인도로부터 타밀족이 침입하고 황폐해졌지만 19세기 복구되면서 스리랑카 최대의 아바야기리야의 다가바(원형불탑)을 비롯한 많은 다가바와 사원터, 석조 연못 등이 남아있다.



루반벨리시야 사원은 두투게무누왕이 건설을 시작했지만 몸이 좋지 못해서 지속적인 건설이 힘들었지만 완공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동생이 형을 위해서 대나무로 우선 1차완공하고 두투게무누왕이 죽고 난 후 허물고 다시 벽으로 건설한 사원이라고 한다.



처음 스리랑카에 불교가 유입됐을 때 들어왔다는 보리수나무. 인도에서 건너 온 스님이 왕에게 보리수 나무를 전해주었고 그 나무가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다. 이 보리수나무에서 떨어진 잎을 주우면 행운이 따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잎을 줍고 싶어하지만 잎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Story3.Polonnaruwa



993년에 최초의 수도인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가 타밀족에 점령, 파괴된 후 스리랑카의 두 번째 수도였던 곳이다. 198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폴로나루와는 싱할라(Sinhala)족의 출라(Chola)왕조 시대에 건립된 브라만교의 기념물과 12세기 왕조의 전성기인 파라크라마바후(Parakramabahu) 1세가 건설한 기념비적 유적이 산재해 있다고 한다.



파라크라마바후 1세의 궁전 유적이 다. 궁전은 한 변이 각각 45.7m인 정사각형의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3층 벽까지만 남아 있다. 36개의 돌기둥은 당시의 홀 지붕을 받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7층 구조로 천개의 방이 있었다 한다.



폴론나루와의 상징이 되다시피 한 갈비하라(Gal Vihara)사원은 12 세기에 축조되었다고 한다. 커다란 바위산을 깎아 만든 불교사원으로 거대한 화강암 불상이 장관이다. 불상들이 매머드 급으로 부처 와불은 길이가 14 미터, 좌상은 높이 5 미터에 이르며, 부처의 제자 아난다의 입상도 높이가 7 미터에 이르는 아주 멋진 불상들이다.

Story4. Nayana

첫 번째 여행이라 더욱 떨렸던 여행. 항상 처음은 떨리고 설레고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기대는 무척이나 높았다. 여행을 좀더 즐기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방문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도 조사하고 무엇을 할지도 고민했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미리 준비했더라도 첫 여행이라 아무것도 몰랐고 첫 여행이라 많은 실수가 있었다. 우린 실수를 통해서 스리랑카를 좀더 알 수 있었고 좀더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의 첫 여행은 마한시(피곤함)에 절어서 끝났던 것 같다.



다른 것의 차이를 알아가는 과정, 고통편. 틀린 것이 아닌 우리와 다른 것



0329 아미들은 처음으로 이곳의 버스를 타게 되었다. 잠시였지만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다.



1. 버스가 높이가 낮아서 손잡이가 봉으로 되어있다.
2. 앉아서 가는 경우보다 서서 가는 경우가 더 많다.
3. 에어컨 기능이 전혀 없다. 오직 열 수 있는 창문의 바람이 에어컨이다.



1. 돈 통 대신 차비를 받는 '안내군'
2. 타고내리는 것도 안내군을 통해서함.
3. 가는거리마다 가격이 다르고, 버스마다 다르다.(우리나라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간혹 외국인에게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있다.]



버스정류소가 따로있긴 하지만, 이렇게 버스정류소가 아닌곳에 쉽게 내리고 탈 수 있다.

[지나가기 전에 말을 하면 내리고, 버스가 지나갈때 안내군이 볼 수 있도록 손을 흔들면 된다.]



버스종점

가장좋은A/C버스 대기하는 여러버스

출발 후타는

버스 정류소와 여러가지 버스 -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버스 타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곳.

환승 제도가 없다. 가격이 15 - 30루피 (150-300원), 모라투어 - 콜롬보 한 지역을 가는데도 58루피 (580원) 가격을 보면 환승제도가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엔 버스가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탄다.

다른 것의 차이를 알아가는 과정, 고통편.
 틀린 것이 아닌 **우리와 다른 것**



0410 또 다른 교통 수단 기차를 처음 접한 날. 이날은 1등석 기차를 탔던 날.



YMCA 근처 기차역, 시간표가 손으로 직접 써주고, 전광판에 현재와 가까운 시간표가 뜬다.



1. 등석마다 의자의 모습이 다르다. 1등석은 6인석 커플석. 나머진 긴 의자형.
2. 기차 안은 우리나라 전철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기차
3. 선풍기가 간혹 달려있으면서 돌아가고, 사람들이 많이 탈 땐 지옥철과 비슷함.



1. 창문& 문 항상 OPEN 내리는 것과 타는 것이 출발하고도 가능하다.
2. 시속이 느려서 몸을 반쯤 내고 밖을 바라보고 타는 사람들도 많다.
3. 기차 안에선 안내방송을 하지 않는다. 잘 보고 잘 내려야된다.

기차가 버스보다 더 싸다는 것이 신기한 점이다. 바다 옆으로 달리기 때문에 경치가 너무나 이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모든 칸이 '지정석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가 때론 없다. 다들 솔솔부르는 바람을 느끼면서 조용히 기차를 탄다. 음향은 오직 간간히 들리는 목소리.

다른 것의 차이를 알아가는 과정, 고통편. 틀린 것이 아닌 **우리와 다른 것**



우리나라와 차선이 '반대' 운전석도 '반대'

자연스럽게 차선에서 왼쪽으로 보는 것이 편했던 우리는 한동안 당황을 하였다. 차를 탈때도 자꾸 우린 운전석에 앉으려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사실..아직도..



유턴 표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유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기저기에 찾아 볼 수 있다. 그래서 차들이 지나가지 않을 때 재빨리 유턴을 한다.

[간혹 내가 타고 있는 차,뚝뚝이 지나오는 차를 겨우 피해서 유턴할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우를 많이 겪는다.]



차선이 따로 있지 않고, 지그제그 표시가 되어있다. 간혹 차선이 1차선이 될때도 3차선이 될 때도 있고, 자체적인 일방통행 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점 때문에 차를 타고 있을 때 불안감이 무진장 크다. 언제 올지 모르는 반대차선의 차들을 피하는것이 때론 어려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신호등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신호등이 이곳의 특징이며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점.

1. 빨간 불인데도 차가 지나가지 않으면 길을 건너 다닌다.
2. 신호등이 녹색불인데도 차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걸 사람들이 살피고 피해야된다.
3. 횡단보도가 있지 않아도 보도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지나다닌다.

** 버스가 오면 더더욱 도로는 일방통행과 갑자기 버스정류소로 바뀐다.

다른 것의 차이를 알아가는 과정, 고통편. 틀린 것이 아닌 우리와 다른 것



스리랑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오토바이. 피켓팅을 하고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잠바를 입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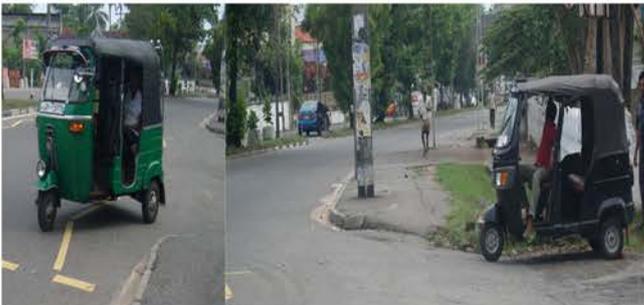
1. 많은 사람들이 타서 위험성이 있다. [이때까지 본 건 작은 오토바이에 4명이상이타는것을 봄.]
2. 헬멧을 다 쓰고 탄다. 많은 사람이 타도 헬멧을 쓴다.

[단, 어린 아이 경우엔 안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모자를 쓰는 경우가 있으면 일반 모자를 쓰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를 타고도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같이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 사진 처럼 타고 다닌다.

1. 클랙션이 사용하지 않아서 운전하면서피해다닌다.
2. 자전거 차선이 따로 없다.
3. 뒷자석이 있는 자전거를 잘 없다.[아직까지 본적이 없다]



우리가 이곳에서 가장 많이 탄 이동수단 뚝뚝. 위험하기도 하면서 가장 시원하다. 손 쉽게 탈 수 있고 많이 이용한다. 일종에 택시

1. 가격은 타는 뚝뚝마다 다르다.
 2. 양 문옆이 가장 시원하지만 가장 위험한 곳이다.
- (외국인은 미터 뚝뚝이 유리하다. 작지만 가장 효율성이 큰 이동수단.)

이 곳에서 다르다고 인정하기 아직까지 어색한 것이 교통수단인 것 같다.

처음 이곳에 와서 너무 독한 매연 때문에 손수건으로 목과 코를 막을 때도 있었고, 시도 때도 없이 빵빵거리는 차들을 향해서 눈살도 찌푸려졌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것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익숙해져버렸다.

때론 이런 생각도 했다. 신호등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교통체증이 조금 덜 할 것인데 차선만 제대로 있어도 차가 갑자기 막히는 소동과 불안하게 차를 타는 경우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젠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생활 모든 것을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 가장 밀접한 부분인 교통이 이번 달에 나에게 더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이렇게 점점 다름을 알아간다는 것이 이젠 재밌고, 즐거움인 것 같다.

앞으로도 다름을 알아가면서 이 문화에 이곳을 좀 더 알고 즐기다가 돌아가고 싶다.

칼푸나[초영]



짜뚜레가 배운 스리랑카 요리 _ 첫 시간

Mr. Ashoka style 치킨 카레

스리랑카에 와서 싸운 고추장 된장에 너무 의존한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에서 Asst. Coordinator Mrs. Waruni집에 초대를 받아 그곳에서 Mr. Ashoka에게 치킨 카레 만드는 법을 배워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재료

닭 2마리 기준 양파3개, 마늘1쪽, 고추6개, 토마토 1개
카레가루 3큰 술+ 3큰 술(볶음용), 고춧가루 3큰 술, 소금 적당량

2. 조리



닭을 손질하자
조각 조각 잘라서 먹기 좋게

카레가루 3큰 술을 약한 불에 볶자
카레가루가 검은색이 되기 전까지 (맛이 변한다는)

카레가루 3 큰 술과 볶은 카레가루 3 큰 술을
손질한 닭고기에 골고루 비벼 30분 이상 기다리자

기다리는 동안 양파, 마늘, 고추, 토마토를 손질하고
카레실도 준비하자

코코넛 소스를 두르고
카레실->양파, 마늘->고추->토마토 순으로 볶자

볶은 야채에 양념에
비벼둔 고기를 섞어 중불로 익히자

쪽걸을 덜어주고 30분 기다리면
맛있는 카레 치킨 !!!!



Butterfly Effect !

나비 효과, 나의 효과

1. 2012년 02월 03일 “우리의 첫번째 약속”

- 양치컵에 물 받아쓰기
- 세수하는 물 받아쓰기
- 음식물 남기지 않기
- 장바구니 이용하기

2. 2012년 03월 06일 “우리의 두번째 약속”

- 외출시, 전기코드 전원 모조리 뽑기
- 양치컵에 물 받아쓰기
- 샤워할 때 물 받아쓰기
- 손수건 이용하기
- 음식물 남기지 않기
- 엘리베이터 이용 자제하기 (여기 와보니 엘리베이터 같은 건 있지도 않음.)
- 에어컨 사용 자제하기 (여기 와보니 에어컨같은 건 있지도 않음.)



3. “나비 효과, 나의 효과”, 스리랑카에서까지 왜?

서울에서 라온아띠 국내교육을 받을 당시에 “나비효과, 나의효과” 워크숍을 했던 적이 있다. 워크숍을 마치면서 우리는 지역 YMCA에 파견되어 2주동안 지켜낼 몇가지 생활습관들을 약속했으며, 아산YMCA에서 그 생활습관들을 체화하기 위해 퍽 노력했던 것 같다.

그리고, 라온아띠 7기는 파견된 각 국가에서 6월 5일에 350ppm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출국 전 캠프 때 350ppm에 관한 발제를 듣고 나서, 우리팀은 350ppm 캠페인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 때 우리가 대기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추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수 있는 생활습관들을 유지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물론, 350ppm에 대해 나름의 깨달음을 얻었으니 개인별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이어나가는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스리랑카에 파견된 라온아띠 7기’라는 하나의 ‘팀’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만큼, 우리는 팀 내부적으로 모두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막말로, 우리 팀이 이곳에서 전기와 물을 평평 낭비하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투척하고 온갖 일회용품들을 사용해대면서, 6월 5일에만 반짝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요’라고 이야기하는것은 무의미하지 않은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산YMCA에서 지역훈련을 하던 당시 실천했던 생활습관들에 두어가지의 새로운 생활습관들을 추가해서 스리랑카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생활습관들의 목록을 만들었고 잘 지켜내보기로 서로 약속했다. 스리랑카에 온지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 솔직히 가끔 전기코드를 뽑는 것을 까먹은 채 출근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양치컵에 물을 받아 쓰는 게 귀찮기도 하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속한 생활습관들을 꽤나 잘 지켜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6월 5일, 350ppm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점 부끄럼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최소한만큼만’ 부끄럽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이 생활습관들을 잘 이어나가고 싶다.

Cargill, 스리랑카의 식탁을 점령하다.



어떤 나라와 교역을 하든, 그 나라의 ‘의식주’ 를 건드리지 않는 것은 일종의 상도덕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의식주가 자립적으로 바로서지 않고 다른 국가에 의존해있다면, 그건 사실상 진정한 자주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을 두고 돈놀음을 해서 돈 없는 사람들은 집도 가질 수 없게 하는, 상도덕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이 미친 세상에서 밥상을 두고 돈놀음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Cargill은 그렇게 우리의 밥상을 서서히 점령해나가고 있다.

고백하건대, 나 역시 한국에서 20년동안 살면서 Cargill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Cargill의 광고를 자주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Cargill의 스낵을 자주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FTA에 관한 공부를 하다가 식량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고, 농민 학생연대활동을 하다가 “쌀값21만원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접하고, 그제서야 내 머릿속에 Cargill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주 영리하게도 Cargill이 식탁을 점령해가는 방식은 쉽사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띠고 있었다. 국내 배합 사료 원료 곡물의 99%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 수입 곡물의 공급자가 Cargill이었다. 국내의 소 사육이 늘어나면 Cargills이 사료곡물 수출을 통해 이윤을 챙기는, 그런 식이었다.

그런데, Cargill이 이곳 스리랑카의 밥상을 점령해나가는 방식은 꽤 직접적이다. Cargill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의 제품까지 유

*카길? Cargill?

카길은 지구상에서 가장 싼 원료 농산물 생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가장 싸게 원료를 가공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우며, 전 세계를 무대로 가장 비싼 소비자를 찾아 나선다. 세계 주요 항만 시설에는 카길의 곡물 엘리베이터가 존재한다. 계약 생산, 수직적 통합, 인수합병, 해외 직접 투자 등은 농식품 복합체들의 전형적인 사업 확장 전략이다.

통하는 food city라는 마트를 마을 곳곳에 세워줬다. Moratuwa YMCA Youth Club 회장의 말에 따르면 야채와 곡물의 60%를 Cargill과 같은 대형 기업에서 점령하고 있다고 한다. 이 곳의 야채는 다른 마트의 야채보다 많게는 두 배까지 비싸다고 한다. 야채 가격이 비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local mart에서 야채를 구입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Cargill의 소비자가 되어가면서 local mart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local mart의 생존이 위협받으면서 local mart의 상품판매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형 기업이 스리랑카의 곡물과 야채 공급을 장악하게 되면서 스리랑카의 식재료 가격이 대형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지껏 스리랑카가 쌀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은 베트남과 태국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2002년 부시 대통령의 농업 보조금 인상 정책으로 베트남과 태국이 쌀농사에서 큰 손실을 본 이후로, 미국이 점점 남아시아의 스리랑카에까지 손길을 뻗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도 Cargill의 농산물이 많이 소비되면 Cargill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들의 생계에는 좋은 것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알고 보니 선진국의 농업 보조금은 자국의 농민에게나 개발 도상국의 농민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국에서는 전체 농장의 20%가 국가 보조금의 80%를, 미국에서도 전체의 10%에 불과한 대 농장이 정부 보조금의 66%를 독점했다는 조사 보고도 있다.¹⁾)

¹ '세계의 밥상' 움켜쥔 초국적 곡물메이저-이유진 기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한국이, 스리랑카가, 그리고 아시아가 제국주의의 성격을 띤 초국적 곡물기업의 돈놀음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삶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내가 선택한 방식은 Cargill의 곡물을, 식품을 소비하지 않는 것이었다. 단순히 나 한명이 Cargill의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국주의적 기업으로부터 local 시장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적 없다. 무언가를 거부하는 운동은 그 운동이 지니는 상징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스리랑카에 와서도 Cargill 거부운동을 지속하다보니 여러가지 생각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 그 생각의 계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식재료를 구입하는 날이 있는데 4월 어느날 카길의 food city에서 장을 봐버린 날이었던 것 같다. Cargill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물건들까지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 다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일주일간 식사시간에 맨밥만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너무나도 갑작스레 찾아온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일주일쯤은 참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Cargill에서 장봐온 식재료들을 사용한 반찬은 먹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홀로 간장에 밥을 비벼먹으면서, 다른 팀원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미안하게도 지난주에 미리 장봐온 야채들로 나를 위한 반찬을 따로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의 편린들이 나를 마구마구 스치고 지나갔다.

‘네슬레의 마일로를 마시면서 Cargill의 KIST과자는 거부하는 건 자기모순 아닌가? 네슬레도 식품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가 잦아. 아니야 이렇게 죄다 안 먹겠다고 선언하다보면 내가 맘놓고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카길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전세계의 농산물가격을 쥐고 있는 주체니까 카길만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이건 결국 내 합리환가? 나 그냥 카길 같은 기업 음식은 다 먹지 말아야 하는건가?’

무언가에 대한 거부운동이 실제로 현실을 뒤집기에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보다, 그 거부운동을 선택한 사람의 실천과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채식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메뉴선택을 하는 데에 자기 눈치를 보는 것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나의 그 일주일이 그랬다. 지난 주에 남은 소량의 야채들만으로 내 반찬을 따로 챙겨주는 팀원들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지키고 싶은 가치라 하더라도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조금의 피해라도 보게 된다면,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행위 자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반찬 따로 하는건 너무 귀찮은 일이라는 걸 알겠어서, 다음에 다시 “불가피하게”(이게 중요한 조건임^^) 카길에서 장을 보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 그때는 맘놓고 먹으려나.

그 해프닝이 일어났던 다음주에 바로 팀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을 이 기회를 빌어 전하자면... 신경 써줘서 고마웠고, 미안했어요 흑흑 사...사.....좋아해요☺

(↓야채로 국물 낸 수제비)

(↓간장으로 국물 낸 수제비/이게 더 맛있었다는 게 함정)



목숨을 걸고,

스리랑카의 자유언론운동.

1 자유와 언론

“언론악법반대”라는 슬로건을 걸고, 서울의 광장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던 그 때에 우리는 마치 6-70년대의 군부로 되돌아간 것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던가. 모 기업에서 스물이 넘는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서울의 거리 한 복판에서 공권력에 의해 시민들의 몸에 불이 죽어갈 때에도, 무차별한 물 대포와 경찰력의 폭행에 대학생들이 짐승처럼 맞고만 있을 때에도, 몇 언론은 침묵을 지킨다.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기자들이 뉴스를 포기하고 파업을 감행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언론은 ‘자유’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2 국영언론이 왜이리 많은가

스리랑카에 와보니, 스리랑카 역시도 언론이라는 단어 앞에 ‘자유’라는 단어가 붙기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있었다. 현지 코디네이터의 말 에 따르면 10개가 넘는 방송사 중 2~3개를 제외한 방송사가 모두 국영방송이며, 그나마 나머지 2~3개의 방송사 역시도 정부의 서포트를 받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반정부적인 색채를 띠는 뉴스는 내보내기 쉽지 않다고 한다. 신문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8개의 신문사 중 4개는 국가가 운영하는 신문사이며, 나머지 4개는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09년부터 10년도까지, 스리랑카에서 언론인 16명이 피살되고, 15명이 납치되었으며 34명이 폭행을 당하고, 39명이 살해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대선 도중 현재 대통령으로 선출된 라자팍세의 라이벌이었던 폰세카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던 남성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적도 있다. 대선 도중 불거진 이런 의혹들에 대한 질문을 했던 스위스 라디오 기자는 스리랑카에서 추방당했다. 결국 대선 기간에 나온 ‘언론 자유 보장’과 ‘언론인 암살 조사 실시 공약’은 대통령 당선 이후 며칠이 채 되지 않아 그렇게 그냥, 사라져 버렸다.

3 관성에 젖어버린 정치인

스리랑카 여당의 정치인들이 관성에 젖어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물론 어느 나라의 여당 정치인들이 관성에 젖지 않고, 모든 국민과 힘없는 소수들을 위해 소신 있는 정치를 펴고 있겠냐 만은, 스리랑카의 정치인들 역시 타성에 젖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사실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스리랑카 정치인 중에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보도를 하는 언론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공권력의 부정부패를 고백하려는 양심적인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폭력이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의 부조리를 비판해 온 한 신문사는 누군지 모를 범인의 방화로 인해 운전시설이 모두 불에 타 버리기도 했다고...

4 공권력 폭력의 정당화

스리랑카의 언론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접근해보면 어떨까?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내전 때문에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그 공포감을 이용해 '국가안보를 위한 폭력은 정당하다'는 명목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아닐까. 군부의 일탈을 파헤쳐 온 한 신문사는 잇따른 무장공격으로 여섯 명의 직원을 잃기도 했으며, 경찰의 부정을 고발하는 기사를 썼다가 목숨을 잃은 젊은 기자도 있다고 한다.

5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결국 스리랑카는 이라크, 북한, 파키스탄 등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피습당한 여러 언론인들은 다른 국가의 언론인의 접근 역시 경계할 정도로 그 정신적 외상이 크다고 한다. 그럼에도 스리랑카의 언론인들은 자유언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기꺼이 펜을 든다. 역시, 펜은 총보다 강하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켈름-

두 달이 되어가는 시간 . 이곳 아이들과도 안면을 트고 가벼운 장난과 인사를 아무렇지 않게 나누게 되었다. 수업에 찾아오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일이 일상의 기쁨이 되고 있다. 나는 이곳의 아이들과 한국의 아이들이 만나며 느낀 감정들을 조금 다른 듯하다. 우선 스리랑카 친구들을 만나며 조금은 조심스러워진다. 어쨌든 나는 이방인의 시선으로 대하기에 때로는 거칠기도 하고 소통이 안 될 때에는 오해도 쉽게 부르기 때문이다. 또 하나 다른 감정은 조금은 더 마음을 열고 바라보게 된다. 환경이 조금 부족한 어린 아이들에게서 느껴지는 거친 감정들이나 때로는 10 대 아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사춘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게 된다. 이 이해가 가끔은 동정이나 안타까움 마음과 뒤섞이기도 하지만 나를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 한다. 이런 나만의 생각과 다르게 이곳에서 나는 아이들에게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가끔은 잘못도 저지른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려 한다.

먼저 나는 빈민가에 속하는 디고롤라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마도 가장 많은 실수 아닌 실수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디고롤라는 도심 속의 빈민가로 볼 수 있다. 200 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강가 주변 매우 좁은 구역 안에 밀집해서 살아가고 있다. 다행스럽게 디고롤라는 라온아미와 만나게 되면서 마을의 배수로와 화장실들 등, 기본적인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한 사람 지나가기 빠듯한 골목과 코를 찌르는 악취들, 쓰레기로 뒤덮인 강가를 보면서 거칠게만 보이던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처음 만남에서 Y 로 가는 버스 안에서 쥐 콩 같은 아이들이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러대고 실내에서 크리켓을 쳐대며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한 숨만 쉰 기억이 엇그제 같다. 물론 지금이라고 해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어안을 병병하게 만드는 이 아이들을 밝은 모습과 때로는 지나치게 폭력적인 모습에서 어찌할 바 몰랐던 나는 어느 순간 힘으로 아이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내가 맡은 첫 수업 시간에 서로 주먹질을 해대며 수업을 뛰쳐나간 아이를 보면서 나는 대화가 아니라 힘 적인 통제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는지도 모른다.

소리를 지르고 제멋대로 뛰쳐나가는 아이들을 힘으로 잡아 세우고 나를 똑바로 노려보고 좋지 않은 말을 해대는 아이를 힘으로 누르고 있는 순간, 내가 뭘 하나 싶은 마음이 생긴다.

나는 선생도 스리랑카 사람도 누군가에게 가르칠만한 지식도 인성도 가진 사람이 아닌데 말이다. 한 수업 때다. 실내에서 요란하게 크리켓을 쳐대는 아이들을 보며 나는 크리켓 배트를 냉큼 뺏어 달아났다. 배트를 들고 있던 말쑥꾸러기 녀석이 왈각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장난밖에 모르는 녀석을 눈물을 쏟았다. 뭐지 ? 라는 생각과 잠시 . 오늘은 디고롤라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남자 녀석이 수업에 오지 않았고 항상 배트를 들고 타자를 하던 대장 녀석 대신 그 말쑥꾸러기 녀석이 배트를 들고 있었던 날이었다. 마땅히 될 곳조차 없는 아이에게, 그것도 타자도 제대로 못해본 녀석이 배트를 잡은 순간 , 외국 어른 놈이 하나 나타나 배트를 잡아 채간 것이었다. 나라도 울 것 같다. 국내에서 무빙스쿨 때 성미산 학교, 벼리학교를 다니며 아이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라고 배웠던 대안교육이 떠나면 이상으로 사라졌던 날이다.

또 다른 수업 때다.

예닐곱 명의 아이들을 잡아두고 A,B,C,D 를 가르치던 때이다. 관심도 잠시 뿔뿔이 흩어져 소강당을 기구를 부단하게도 부셔대는 아이들 사이로 너무나 열심히 수업에 따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자유시간. 놀이터로 뛰어간 아이들과 다르게 여전히 내 옆에 혼자 앉아

열심히 알파벳을 적고 자기 이름을 영어로 나에게 적어 보이려 노력하는 아이의 모습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마저 느껴졌다. 이 순간도 잠시 힘 껴나 쓰는 여자 아이가 와서 공부 하던 아이의 팔을 잡아채 끌고 나가는 게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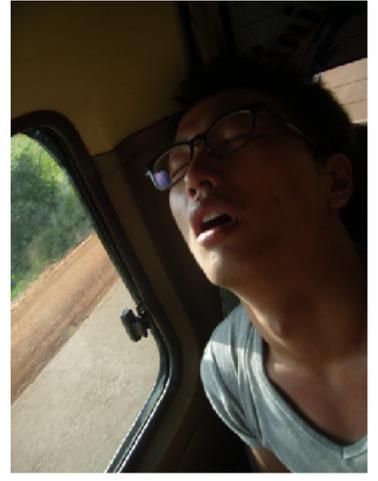
가지 않으려 문틈을 잡고 버티는 아이를 보며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눈물을 흘리며 끌려가는 아이를 멍하게 바라보았다. 끌려가 머리채를 잡히고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참 쓰라렸다. 이때 멍하게 강당에 있던 나는 무심히 수업 교구를 정리를 하고 있었다. 잠시 뒤 다시 강당에 들어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밝게 웃으며 자신이 열심히 쓴 알파벳 종이를 나에게 수줍게 주고 나가는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 때 나의 짧은 생각은 디고롤라 아이들의 세계에는 힘의 세계가 존재하고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의 문제에 끼어들면 나중에 내가 감싼 아이가 돌아가서 왕따를 당하거나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핑계를 만들었다. 지금에서야 나는 내가 비겁했구나 라고 느낀다. 관여하고 싶지 않았고 방관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놀이를 하고 싶어도 다른 아이들의 눈치를 먼저 봐야 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슬프게만 다가왔다. 너무나 일찍이도 세상에 자신의 벽이 생긴 듯 했다. 그리고 이 벽을 아무렇지 않게 인정하는 한 어른이 된 내가 싫었다.

이 일들 말고도 아이들을 울리고 상처 준 일은 많다. 그리고 요즘에서야 벼리와 성미산, 아산 반디블이에서 보고 배웠던 말들이 조금 생각나기 시작한다.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말없이 안아주는 선생님, 잘못을 묻지 않고 먼저 공감해주고 스스로에게 판단을 맡기는 선생님들, 언제나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는 어른다운 어른들의 모습.

이 태움을 이제 조금은 실천하려 한다. 아직은 제 화에 못 이겨 성질을 부리는 내가 더 많지만 말이다. 아이에게 태운다는 말을 새삼스레 다시 느끼는 지금. 나라는 사람이 좀 더 따뜻하고 뜨거운 인간이 되길 바라본다.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되길 바라며 .



켈룸이 산 4월



이번 달 나는

가끔 다투고

가끔 아프고

가끔 넋을 놓았고

가끔은 눈물 나기도 했습니다.

‘다름’ 을 ‘다름’ 이 아니라 틀림으로 생각해서였고

한국적 감수성을 버리지 못해서 인지도 모릅니다.

입으로 말하고 귀로 배운 말들이

쉽사리 몸과 마음에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공감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지금

그저

잘 살다 가고 싶습니다.

-4월 끝-

**연탄재 차지들 마세요.
Kelum화냅니다.**